

“투명하고 성스러운 목소리…광주에 감동 전할 수 있어 영광”

독일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합창단’ 광주 교류협력 공연 성료
에마누엘 스코벨 대표 “아이들이 음악으로 세상과 이어지길…”
관객들, 숨죽여 무대 감상…합창단, 향교서 전통문화 체험도

무대 위에는 작은 오르간과 첼로, 더블베이스, 그리고 42명의 소년뿐이었다. 단출한 편성이었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공간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켜켜이 쌓여 올라가는 목소리는 마치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한 빛처럼 맑고 투명했고, 객석은 독일의 작은 교회 안으로 들어선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11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합창단의 공연 무대. 자매결연을 맺은 광주와 라이프치히의 교류 협력 공연이자, 전당의 ‘GAC 공연예술축제 그라제’의 포문을 여는 자리였다. 안드레아스라이체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합창단원 42명이 무대에 올랐으며 오르간 펠릭스 쇤허, 첼로 사샤 베어하우, 더블베이스 티탄 슈미트가 협연했다.

성스러운 소년들의 노래에 객석은 숨을 죽였다.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합창단을 바라보기도 했고, 또래의 어린 관객들 역시 진지한 표정으로 무대를 감상했다. 공연 중간 합창단이 한국식으로 고개를 숙여 관객들에게 인사를 전했을 때는 박수

갈채와 환호가 쏟아져 나왔다.

성 토마스 합창단은 1212년 설립된 이래 800년 넘는 전통을 이어온 독일 대표 소년합창단이다. 18세기 바흐가 토마스칸토르(Thomaskantor·음악감독)로 재직하며 ‘마태수난곡’과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등을 초연한 곳으로 유명하다. 지금도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에서 매주 이어지는 모테트(성악곡)와 예배는 지역 주민은 물론 전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이번 공연을 앞두고 기자는 합창단의 운영을 책임지는 에마누엘 스코벨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광주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영광”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예술적 방향 설정과 레퍼토리 선택 등 합창단의 예술적 영역을 칸토르인 라이체 음악감독이 담당한다면, 스코벨 대표는 예술 외의 영역을 맡은 인물이다. 토마스칸토르는 무대 위에서, 스코벨 대표는 무대 뒤에서 합창단을 함께 이끌어 가는 구조다. 특히 스코벨 대표는 재정과 운영, 해외 투어와 홍보, 단원들의 생활까지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합창단이 지난 11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에마누엘 스코벨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단원들의 모습.

챙긴다.

그와 단원들은 공연 전날 광주의 전통 공간을 둘러보고 민화도 그리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향교에서는 유생복을 입고 유생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바흐의 코랄(합창곡)을 불러주기도 했다.

스코벨 대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겨준 광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서울, 부산 등에서 무대에 선 적은 있었지만, 합창단원만으로 내한해 순수 합창 공연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년들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지는 합창의 본질을 광주 관객에게 전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합창단은 단순한 공연 단체가 아니라 학교이자 교육 기관이다. 9세에서 18세까지 100여 명의 단원들이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라이프치히시가 운영하는 토마스학교에서 공부한다. 아침에는 일반 수업을, 오후에는 음악과 합창 수업을 받고 주말에는 성 토마스 교회에서 예배와 연주를 한다. 일상과 음악이 맞닿아 있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학업과 예술을 동시에 익히며 합창단의 전통

을 이어간다.

스코벨 대표는 “소년합창단은 성인합창단과 달리 아이들에게 노래하는 기술보다는 음악을 사랑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마음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아이들은 매주 예배와 공연을 준비하며 책임감을 배우는 한편 작은 목소리 하나가 모여 거대한 화음을 이룰 때의 감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코벨 대표는 광주 소년소녀합창단 이야기가 나오자 반가움을 표했다. “아이들이 노래로 관객을 감동시키는 경험은 합창단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다. 지금은 음악을 주로 듣기만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직접 노래하고 연주하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며 “광주에 이런 합창단이 있다는 건 큰 자산이며,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광주 관객과 합창 꿈나무들을 향해 메시지도 남겼다. “노래는 삶의 균형을 주고, 자신과 타인에게 기쁨을 선물합니다. 이번 공연이 광주 시민께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아울러 합창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노래로 세상과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글·사진·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골목과 공방, 삶과 예술 연결 양림 아트투어 11월 9일까지

아침과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 불볕더위가 어느새 물러간 자리에 도시 골목에는 가을이 성큼 들어와 있다.

광주의 근대문화가 오롯이 남아 있는 양림동 골목도 가을 분위기가 물씬 배어 나온다. 이색적인 카페와 갤러리, 문화 공간 등이 밀집해 있어 양림동은 언제 가도 예술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골목과 공방, 삶과 예술이 연결되는 순간’을 주제로 한 양림 아트투어가 펼쳐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대표 정현기)가 진행하는 이번 아트투어는 지난 13일 시작해 오는 11월 9일까지 이어진다.

김혜정, 홍원옥 도슨트가 함께하며 모두 네 차례 진행된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며 무료다. (오는 27일~28일, 10월 11일~12일, 10월 25일~26일, 11월 8일~9일(오전 10시·오후 2시))

골목 투어 여정은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을 출발해 펄컨미술관, 펄컨마을 공예거리 15동 A, B, 펄컨마을 공예거리 11동, 양림동 청년창작소 별관으로 짜여져 있다.

정현기 대표는 “이번 양림 아트투어는 도슨트와 함께 걷는 예술 골목 여행 일환으로 진행된다”며 “가을의 주말에 펼쳐지는 이번 투어에 참가해 양림동 골목이 발하는 예술적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가와 독자가 주인인 공간 국립한국문화관, 내년 개관

한국 문학 발전을 위해 주요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며 독자와 작가가 소통하는 공간이 될 국립한국문화관이 2027년 정식 개관한다.

문정희 국립한국문화관 관장은 최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문화관 공사 현황과 개관 계획을 밝혔다.

문 관장은 “서울 은평구에서 공사 중인 문화관 건물은 내년 완공될 예정이며 6개월가량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정식 개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세종박물관 수장고에 보존하고 있는 국립한국문화관 자료 약 11만점은 내년 문학관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옮겨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립한국문화관은 2016년 문학진흥법 제18조가 제정되며 법인이 설립됐으나 부지 선정과 공사 등에 시간이 소요돼 공사는 지난해 5월 시작했다.

문 관장은 “문학관 건물을 짓는 데 긴 세월이 걸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국인의 영혼을 알리는 집을 세우는 일이라서 오래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립한국문화관 건물은 문학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수장고이자 일부 자료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공간은 문학 전문 도서관으로 쓰인다.

문학관 관계자는 “곧 완공되는 국립한국문화관은 작가와 독자가 주인인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전시는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가들이 독자와 소통하는 행사도 개최하려고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와 대구 작가들의 ‘藝道 한 길’

광주·대구 영호남 현대미술 교류특별기획전이 광주에총 지호갤러리, 백련 갤러리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개막해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획전 주제는 ‘藝道 한 길’전.

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광주미협)이 주최하는 이번 특별 기획전은 문화예술 활성화와 미술 분야 교류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작가 88명, 대구작가 64명 등 모두 152명이 참여해 양 도시 간의 예술 교류, 우의를 다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藝道 한 길’이라는 주제가 말해주듯 이번 행사는 예술의 길을 걸어온 양 지역 작가들의 작품세계 등을 집약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또한 달빛 시리즈 일환으로 마련된 만큼 영호남 문화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문화격차 해소, 지역 예술의 공동 가치를 제시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

전시기간에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ACC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돼 여향 광주의 문화자원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시에는 회화를 비롯해 조각, 뉴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 152점이 출품됐다.

추상적이며 깊은 의미를 함의한 김효삼 작가(광주)의 ‘생채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파란색 화면에 까만 별레로 보이는 형상들이 이색적이다. 작가는 상흔의 밀도와 범주를 독자들의 상상 속에 맡기고 있다. 관객들이 바라보는 생채기와 작가가 상정하는 생채기 사이에 드리워진 간극은 그만큼 해석의 다양성을 견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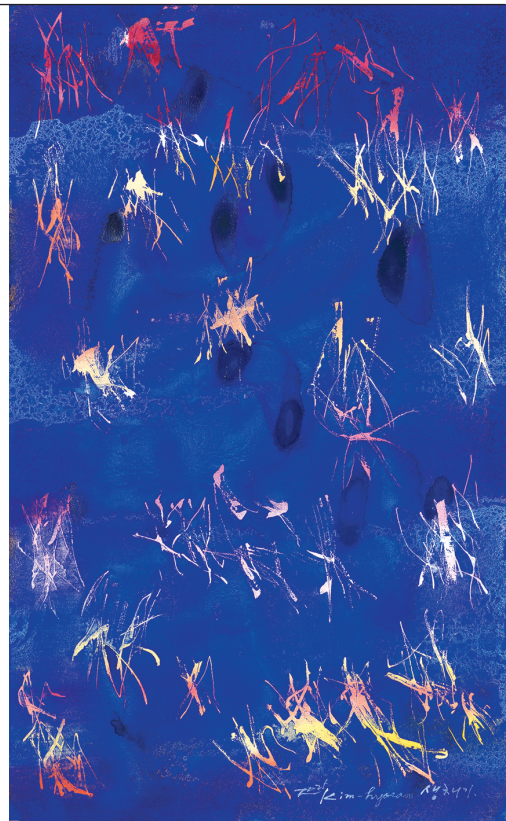
박두봉 작가(대구)의 ‘기억-Blue mountain’은 중첩된 산 위에 떠오른 해(달)의 모습이 맑은 감성을 선사한다. 단순화된 산의 형상을 오래전 기억을 간략화한 이미지로 제시했다. 시간이 주는 힘, 기억이 주는 윤색의 효과로 풀이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미협, 영호남 현대미술 교류전 15일까지 지호갤러리·백련 갤러리



박두봉 작 ‘기억-Blue mountain’



김효삼 작 ‘생채기’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